Fixed Income

# 1월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에도 여전히 완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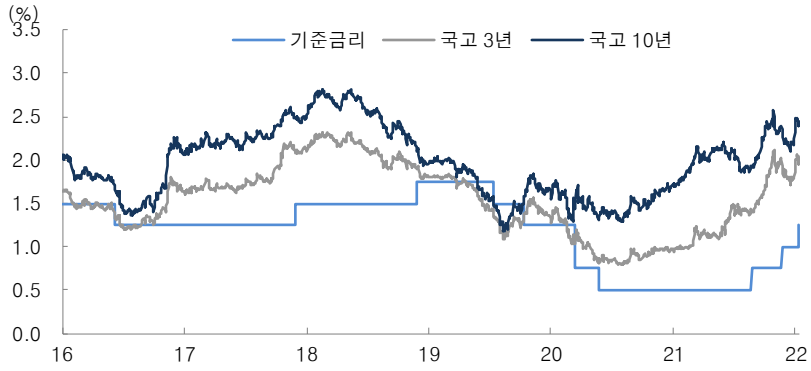
Economist &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당사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기존 1.00%에서 1.2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한국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금리가 인하되기 직전 수준으로 복귀했고, 지난 8월 이후 3번째로 이뤄진 금리 인상이었다.
- 이번 결정을 놓고 앞서 채권시장에서는 의견이 서로 분분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자체에 대한 시각 차이라기 보다는 인상 시점을 놓고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이냐에 대한 논란이었던 만큼 채권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다. 또한 사실상 이주열 총재의 임기 중에 이뤄진 마지막 인상이란 시각으로 인해 기준금리 결정 자체가 주는 영향 역시 크지 않았다.
- 하지만 통화당국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중앙은행 특히, 연준(Fed)의 통화정책 일정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종전까지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해 달라진 시각을 밝혔다. 또한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개시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금융불균형 역시 여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코로나19를 둘러싼 경제 전반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통화당국은 기조적인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낙관적인 경기 인식을 강조했다. 아울러 감염병에 대해 경제 주체들의 적응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한국 경제의 구성 항목 가운데 가장 부진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소비의 경우 서비스 소비 부진을 상품 소비가 대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물가에 대해서는 한달여 만에 전망치를 올렸다.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진단하고, 연간으로도 2%대 중반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수정 경제전망에서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비교할 때 큰 폭의 전망치 상향이다.
- 경제 펀더멘털 요인 특히 물가에 대한 통화당국 차원의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과 동시에 이번금통위에서는 직접적인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언급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코로나 이전인 1.25%로 돌아갔지만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진단한 것과 동시에 현 수준에서 1차례 더 인상된 1.50%까지 기준금리를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당사는 통화당국이 물가 전망 상향 등과 같은 변화 요인을 반영해 최근 중립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 역시 상향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금리 레벨에 대한 언급이 종전보다 강력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한다. 이에 당초 예상됐던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도 조정했다. 올해 1분기 인상 이후 한국 기준금리는 신임 총재 임명 등의 일정이 진행될 예정인 2분기까지 현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되겠으나, 3분기에 한차례 더 인상을 예상한다(2022년 연말 한국 기준금리 1.50%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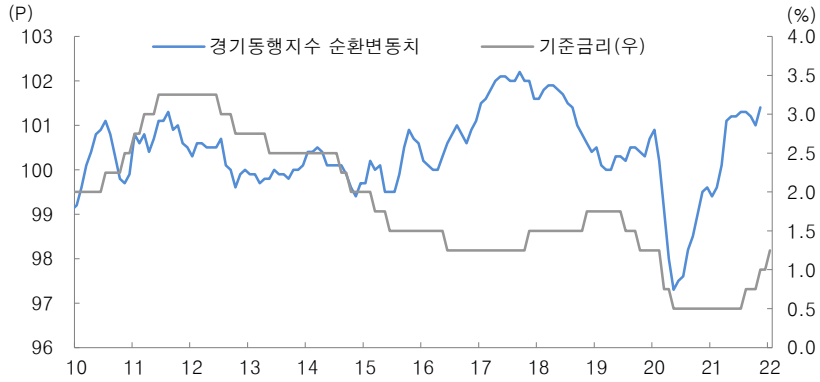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그림 1. 한국 기준금리와 국고 3년, 10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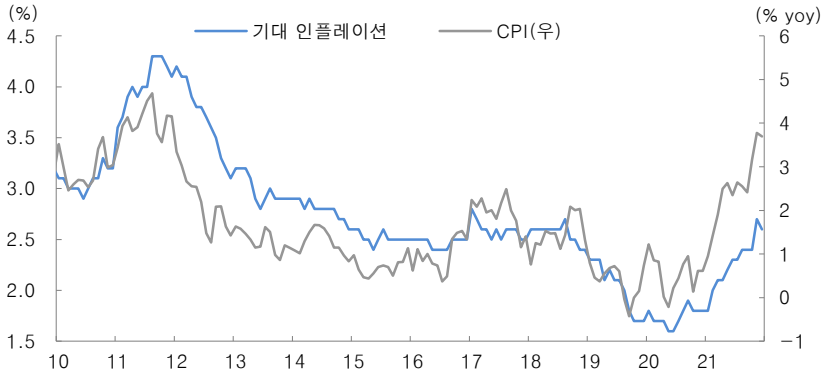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한국 기준금리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한국 월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기대 인플레이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공동락)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